

# 환경부장관, 쓰레기 종량제 현장 확인



**이**재용 환경부장관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을 맞아 종량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달 20일 새벽 5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 주택가를 방문하여 환경미화원과 함께 쓰레기를 직접 수집·운반하면서 종량제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실태를 확인했다.

**또**한 이 장관은 이날 쓰레기 수집·운반 후 환경미화원 30여명과 함께 아침식사를 결단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종량제 등 쓰레기처리 정책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

**이**번 행사의 의미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전(94) 대비 23% 감소하고, 재활용은 175% 증가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등으로 10년간 약 8조 4백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였으나, 아직까지 종량제 봉투 내에 재활용 가능 자원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쓰레기 수거방식 등 수거체계를 점검하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환경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함이다.

**향**후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러한 현장 방문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다. ◀